

“북미 첫 회담선 ‘완전한 비핵화’ 포괄협의 성명만 나올 듯”

미 언론 “세부 사항은 후속회담서 ... 문 대통령 참석해 평화조약 논의할 가능성도”

북미정상회담 D-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인 만큼 기본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후속회담에서 다루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번에는 만나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은 북핵에 관한 포괄적 합의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는 개괄적 성명이고 결국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많은 세부사항은 추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제재를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은 전 세계 언론이 들여다 보고 있는 이번 회담에서 뉘앙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푸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이번 정상회담



의 결과에 대해 “디테일의 악마가 따르는 광범위한 합의를 예상한다”며 “(비핵화) 전체는 매우 어렵다. 여러모로 불 때 정상회담은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신문은 “가능성은 작지만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며 “대부분의 북핵 무기 프로그램은 베일에 싸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일 킴벌 미 군축협회 사무총장도 이 신문에 “한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과정(process)”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

령이 지난주 “6월 12일 빅딜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날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비핵화 합의를 ‘과정’으로 언급한 데 주목하면서 “그 과정에는 남북 관계를 포함해 핵-경제와 무관한 이슈가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평화조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CNN은 지난달 29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 핵심 의제를 놓고 기본 틀(framework)만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무엇을 포기하고 미국이 반대로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다루지 않고 추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문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 대신 세부적 사항은 향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실무협상을 통해 타결될 것이라고 CNN은 밝혔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코리아 워킹그룹’ 사무국장인 존 박은 CNN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리 준비된 공동성명(joint declaration)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비핵화 메커니즘의 공식적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



5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포몰러원 경기장 건물에서 관계자들이 미디어 센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현지 신문은 북미정상회담 미디어 센터를 이 건물에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전남 벤처포럼 첫 엔젤투자 성과 ... 요트업체와 10억 투자 협약

전남도는 최근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열린 제5회 전남벤처포럼에서 지역 투자자와 요트 제작업체 간 10억원 규모의 첫 엔젤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남엔젤투자클럽 회원인 이정기 퍼스트인투자자문 대표가 5억원, 황현수 클럽 회장이 3억원, 정문수 한국기술투자 대표가 2억원을 각각 요트 제작 업체 에스컴텍에 투자한다.

이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가 2016년 창립한 전남 벤처포럼을 통한 첫 엔젤투자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에스컴텍은 40ft 컨테이너 2대를 활용해 운송 가능한 조립식 요트를 제작하는 업체로 생산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

황현수 전남엔젤투자클럽 회장은 “엔젤투자클럽은 지난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으로 전남에서 처음 결성돼 2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지역 엔젤투자자 육성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아 엔젤투자를 필요로 하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靑 “북미 불가침 확약 논의는 남북미 종전선언 후” 한·러 정상회담 21~23일

청와대는 5일 북한과 미국 간의 불가침 확약 논의는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뒤의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에 대한 협의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보가 없다”고 전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 이후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라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고위관계

자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 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미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간 상호불가침 논의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중국 인사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협조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달 4일 한중 정상 통화 직후 제1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중국과 긴밀히 논의·소통·협조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월드컵 기간인 오는 21~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정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양자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며 한러 양국은 한반도 정세가 관련국들에 유리하게 전개되면 북한을 끌어들이 남북러 3자 협력을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중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월드컵 한국-멕시코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줄기세포·면역세포치료 산업화 나서

전남도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치료를 전남 대표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한다.

전남도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는 5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치료제 산업화 전략 포럼’을 열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정형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줄기세포치료제와 정부정책’을, 이계중 화순전남대병원 교수가 ‘면역세포치료제 산업화 전략’을, 차기원 Kbio 신약개발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전략’ 등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세필 제주대 교수는 “전남도의 줄기세포·면역세포치료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

냈다.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2017년 628억 달러에서 2025년 3944억 달러로 6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치료제, 장기복제, 연골재생, 미용치료, 불임치료 등에 줄기세포가 이미 상용화됐다.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면역세포치료(Car-T)는 최근 고령화에 따라 난치성 암, 자가면역질환, 치매 등 수요가 늘고 있다. 암 면역치료제 ‘체크포인트 억제

제’는 2019년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원

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2011년부터 독일 프라운호퍼FZI 연구소와 암 면역치료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적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면역세포치료·줄기세포 산업을 항노화 산업과 연계한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의회호 : 21719239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